뉴시티교회 초등부

리딩지저스

2026. 9. 7. (월) — 9. 12. (토)

새 마음을 주리라

에스겔 20~36장

이름 _____

나의 이번 주 마니또를 잊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줍시다!ㅎㅎ

여는 글

이번 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에스겔에게 슬픈 소식이 도착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 와서 "성이 함락되었다!" 하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에스겔서가 방향을 바꿔요. 야단치던 책이 위로하는 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 뒤에야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으리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기대하며 읽어요!

이 번 주 한 눈 에

6일간의 여정

01	9월 7일 (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02	9월 8일 (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녹**
03	9월 9일 (수)	**나는 신이라 하는 마음**
04	9월 10일 (목)	**부러지는 갈대 말고**
05	9월 11일 (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06	9월 12일 (토)	**목자가 찾아와 새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 20장

9월 7일 (월)

오늘의 말씀

20장

9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9월 7일 (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들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을 거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과 묶어 놓으셨습니다. 백성을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도록,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삽니다.

● 생각 & 적용 질문

혼나야 마땅한데 용서받았던 적이 있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한 줄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24장

9월 8일 (화)

오늘의 말씀

24장

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11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12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9월 8일 (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녹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던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마솥 비유를 주셨습니다. 가마에 녹이 슬었는데, 불에 달구고 닦아도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그 녹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조금 착한 척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눌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덮으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닦아도 안 지워지던 녹 같은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고치고 싶은데 자꾸 반복하게 되는 나쁜 습관이 있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한 가지 적고, 예수님께 씻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28장

9월 9일 (수)

오늘의 말씀

28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

3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와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하고

4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9월 9일 (수)

나는 신이라 하는 마음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 오늘의 묵상

두로는 바다 무역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랐습니다. "이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한 거야. 나는 신이야!"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로는 우상 신전을 세운 죄보다, 성공이 만든 착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잘될수록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도 마음속에서 자라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걸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 생각 & 적용 질문

시험을 잘 봤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 "이건 다 내가 잘나서야" 하고 으쓱했던 적이 있나요? 잘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29장

9월 10일 (목)

오늘의 말씀

29장

2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3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4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5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6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9월 10일 (목)

부러지는 갈대 말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유다는 바벨론이 무서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대는 지팡이처럼 생겼지만 몸을 기대는 순간 뚝 부러지고, 부러지면서 잡은 손바닥을 찔러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까지 다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갈대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세상은 기대면 부러져서 나를 찌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상하고 부러진 나를 오히려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예수님뿐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무섭거나 힘들 때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의지하나요? (게임, 친구, 돈, 부모님...)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기대기 위해, 힘들 때 외울 성경 구절 하나를 골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33장

9월 11일 (금)

오늘의 말씀

33장

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1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21 우리가 사로잡힌지 십 이년 시월 오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2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9월 11일 (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망을 보다가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나팔과 같습니다. 벌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리시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 와서 "성이 함락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부터 에스겔서는 위로의 책으로 바뀝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 생각 & 적용 질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야단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나팔 소리였던 적이 있나요?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불고 계신 나팔 소리는 무엇일지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34장, 36장

9월 12일 (토)

오늘의 말씀

34장

11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5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36장

25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9월 12일 (토)

목자가 찾아와 새 마음을 주세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회복은 두 걸음으로 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을 찾아오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다친 양을 싸매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둘째, 찾아온 양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데려다 놓기만 하면 또 도망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꺼내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는 일은 수술과 같아서, 환자가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주일, 나를 찾아오신 목자 앞에 굳은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새 마음을 받아요.

생각 & 적용 질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가 있나요? 부드러워지면 좋겠는 내 마음 한 부분을 적어 보고, 내일 예배 때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일 예 배

설교 노트

설교 아웃라인 〈새 마음을 주리라 (초안)〉

시리즈 미정 · 에스겔 36:24–28 (설교 확정 시 교체)

말씀을 들으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한 문장 메시지: 하나님은 (①_____)이 아니라 (②_____)부터 새롭게 하신다.

1. 왜 마음부터 바꾸시나요? (26절)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마음이 (③_____)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④_____)이었습니다.

2. 누가 바꿔 주시나요? (25–27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⑤_____)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은 환자가 자기 (⑥_____)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맑은 (⑦_____)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⑧_____)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3.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 3:5)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⑨_____)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마음은 내 결심이 아니라 (⑩_____)의 선물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⑪_____)하며 삽니다.

한 줄로 새기기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⑫_____)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유 필기 노트